



1일 개막 광주국제공연예술제 '놓치기 아까운 공연 4선'

10월! ... 보다 재밌는 무대속으로

10월이 시작되면 광주에서는 풍성한 공연 잔치가 펼쳐진다. 정음성극제음악제(7일~10일), 전국무용제(21일~30일), 광주아트페스티벌(22일~24일), 광주영화연극제(23일~31일)까지 푸짐한 상차림이 준비되어 있다. 첫 테이프를 끊는 행사는 2010 광주국제공연예술제다. 1일부터 17일까지 광주문화회관 등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무용, 연극, 뮤지컬 등 6개국 16개 작품(아와 공연 포함)이 준비되어 있다. 놓치면 아까운 작품들을 소개한다. 공연예술제 최영화 예술감독의 도움말을 받았다.

1 뮤지컬 '잭 더 리퍼'
19세기 초 실제 영국에서 일어났던 연쇄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체코 뮤지컬로 탄탄한 스토리 라인이 강점이다. 살인마 잭, 그를 쫓는 형사 앤더슨, 사랑에 빠져 살인 사건과 얽혀 버린 의사 다니엘, 그리고 특종을 쫓는 기자 먼로 등 4명의 남자가 얽히고 설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긴장감을 갖게 한다. 여기에 다니엘의 연인 글로리아와 앤더슨의 연인 폴리의 사랑이야기가 어우러지면서 감성도 자극한다. 무엇보다 배우들의 앙상블이 좋다. 최근 뮤지컬에 올인하고 있는 안재욱과 감정이

입된 노래로 극을 이끌어 가는 유준상, 가수 신성우와 소나를 비롯해 뮤지컬 전문배우인 최민철과 김범래가 합세, 최고의 연기를 보여준다. '회색도시' 등 뮤지컬 넘버도 귀에 감긴다. 1~2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2 연극 '한 여름밤의 꿈'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연출가로 꼽히는 양정웅이 이끄는 극단 '여행자'의 작품이다. '한 여름밤의 꿈'은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의 원작을 한국에 맞게 재해석한 작품이다. 원작에 등장하는 요정 대신 한국 도깨비와 귀신들을 등장시켜 그들이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유쾌한 해학과 한국적

몸짓으로 풀어냈다. 2006년 폴란드 그단스크 국제 셰익스피어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한 뒤 영국 등 세계 각지에서 공연된 수작이다. 2일~3일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3 연극 '폭풍'
사실, 평화연극제 등을 통해 일본 극단의 작품이 간혹 선보이기는 했지만 광주에서 외국 연극단체의 공연을 보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푸시킨 드라마 시어터가 무대에 올리는 '폭풍'은 러시아 정통 리얼리즘 연극으로 러시아 불가강변의 카리노프카라는 조그만 도시를 배경으로 19세기 러시아 사람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인터미션 시간을 포함해 2시간 50분에 이르는 대작인데다 자막을 봐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상당한 인내심이 요구되는 작품이지만 광주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정통 사실주의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는 점에서 꼭 도전해 볼만한 연극이다. 16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4 무용 '올지 마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미숙 교수가 이끄는 전미숙무용단의 작품

으로 1부 '아듀 마이 러브'와 2부 '아모레 아모레 미오' 두 작품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전미숙 교수의 독무인 '아듀 마이 러브'는 지난해 대한민국 무용대상 솔로 & 듀엣 부문 심사위원 특별상을 탄 작품으로 대중가요 '댄서의 순정' 등을 배경으로 무용가로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 일종의 자전적 춤이다. 중년 여성의 사랑에 대한 감정과 그 부분을 절절히 풀어낸 소품의 활용이 돋보인다.



'아모레, 아모레 미오'는 사랑에 대한 기쁨과 슬픔, 상처 등 일상적 감정과 파편들을 표현한 작품이다. 4일 오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잭 더 리퍼'를 제외하고는 관람료가 2만원~1만원 수준이며 다양한 할인혜택이 있어 사랑티켓을 이용하면 3000원 정도에도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511-126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찾은 영국 대표 팝아트 줄리안 오피 비판적 시각 속 산뜻한 즐거움이 있네

D갤러리 개관 1주년 '나는 그들의 것이 아름답다' 전

영국의 대표 팝아트 작가 줄리안 오피의 작품이 광주를 찾는다. 광주 D갤러리(관장 강경자)는 개관 1주년을 맞아 오는 30일~10월20일까지 줄리안 오피·변용필·손진아, 신동원, 최을가씨의 작품을 선보이는 '나는 그들의 것이 아름답다'전을 연다. 줄리안 오피는 데미안 허스트와 함께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인기 작가다. 이번 전시

에서는 현대인의 익명성과 물개성을 느끼게 하는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는 동시에 깔깔하고 산뜻한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또 변용필씨는 머리카락과 눈썹 등 개성과 사회적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한 후 표정을 일그러트리는 색다른 자화상 연작을 출품했다.

이 밖에 손진아씨는 '의자'라는 특정한 사물을 매개로 자아의 내면을 성찰한 작품을 전시하고, 도자 회화라는 독특한 장르를 선보이는 신동원씨의 도예와 조각, 회화와 설치의 요소를 아우르는 작품도 눈에 띈다.

한편 지난해 광주시 동구 대의동에 자리잡은 갤러리D는 그동안 천경자, 박수근 화백의 작품을 전시했고, 지역의 지역 젊은 작가들의 개인전 등 수준 높은 전시를 기획했다. 문의 062-222-801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변용필 작 '자화상'



줄리안 오피 작 '획과 휘디넌'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탄생 200주년 기념 '슈만 페스티벌'

CN피아노 연주회, 오늘부터 10월1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올해는 서정미가 넘치는 다양한 장르의 곡들과 클라와와 사랑으로 유명한 슈만의 탄생 2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전남대 출신 피아니스트들의 모인인 C.N피아노(회장 한정숙)가 슈만의 곡들만을 모아 3일간 '슈만 페스티벌'을 연다. 29일~10월 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

화관 금요아트홀. 첫날인 29일에는 '환상소곡 작품 12', '아베크 변주곡', '소나타 작품 22'이 레퍼토리다. 연주자는 이혜진·강현철·류혜원·박광수·성지영씨다. 30일에는 김현정·손지성·한정숙·최신희·함지연씨가 '안단테와 변주곡 작품 46', '세계의 로망스', '빈 사육제' 등을 들



<슈만> <한정숙>

려준다. 마지못하의 레퍼토리는 슈만의 곡 중 가장 유명한 '어린이 정경', '교향적 연습곡', '나비' 등이다. 출연자는 박재희·김연·박수영·조현영씨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몽구 시인 '수종사 무료 찾집' 펴내

13번째 시집... 59편 총 4부로 나눠 구성

광주 출신 박몽구(54·시인) 시인이 최근 시집 '수종사 무료 찾집'(시와문화 펴냄)을 냈다. 지난 2008년 '불긋하게 부풀 빵' 이후 13번째 내는 시집이다.

박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현대 도시의 빠른 속도에 휘말려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느림의 미학'을 선보이고 있다. 손에 잡힐 듯

명쾌한 이미지 구사를 주된 기법으로, 현대 도시인들이 회복해야할 인간다움과 여유를 산사와 고향마을, 한해방 순례 등을 통해 펼쳐보인다.

표제작 '수종사 무료찾집'을 포함해, '청계산 가는 길', '장항선 옛 기차길', '송정리 옛집 꽃담 사이로' 등 신작시 59편을 총 4부로 나



뉘 구성했다. 박 시인은 1977년 월간 '대화'지로 등단했으며 광주민중항쟁을 본격적으로 다룬 시집 '십자가의 꿈'을 비롯해 '서울에서 쌓은 산' '개리 카를 들으며' '마음의 귀' 등 다수의 시집을 냈다. '오늘시'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기간 시 전문지 '시와문화' 주간을 맡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완비)

- ◆ 홀 : 연인, 친구, 가족(2인석, 4인석, 6인석)
- ◆ 소모임(룸) : 직장회식, 계모임(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 대모임(룸) :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平日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 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양식장 직영도·소매 할전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전복구이전문점 전복장터

전복구이

전복스팀찜

전복문어찜

모든메뉴 포장됩니다!

각종모임환영, 중·아침, 대형주저장 알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의 완도 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끼실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곡지구
연초제조창
롯데칠성음료
SK주유소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50m
교차로
콜라
해태제과
금광아파트

전복장터

전복장터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예약문의 062)576-8600**